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유다

- 1 그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 2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 3 그녀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르라고 했습니다.
- 4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 5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 아들들의 죽음으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냄

- 6 유다는 맏아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 7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 8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네 형의 자손을 낳아 주어라."
- 9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 10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 11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3 묵상하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정에 닥친 재난은 며느리 다말 때문이 아니라 두 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말을 친절로 보낼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은 막내아들만은 죄를 짓다 죽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 보지도 못할뿐더러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며 죄악된 문화에 취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1-2절). 우리도 죄악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본질이 아닌 현상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겸손함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4 적용하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영적 둔감함이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수시로 매무새를 가다듬듯,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거울에 항상 자신을 바추어보며 삶의 매무새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의 거울이자 영적 오답노트로 삼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어긋난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는 영적 노력과 분별력이 나에게는 있나요?
- ②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 환경 탓을 하거나 회피하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저에게 죄악의 원인을 분별할 지혜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 6 유다는 맏아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7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8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네 형의 자손을 낳아 주어라."
 9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10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11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 궁금 사전

- *형수:형의 아내
- *시동생:남편의 남동생
- *의무:법적으로 꼭 해야 할 일
- *침소:잠자는 곳
- *친정:결혼한 여자의 부모와 형제들이 사는 집

• 말씀 씨앗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 에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형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 동생이 자식을 낳아 형의 아들로 삼게 했어요. 형수 다말과 결혼한 둘째 오난은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의 가정은 이처럼 어려움을 겪었어요.

3 말씀새싹 -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난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7,10절).



4 말씀 열매 -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찾아 미로를 빠져나가 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자기 욕심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5 기도하기

하나님, 저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